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지 제7권 제2호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mmunity Based Occupational Therapy
Vol. 7 No. 2 (August 2017), 9-18
ISSN 2234-0866
https://doi.org/10.18598/kcbot.2017.07.02.02

대학생의 감각처리 유형과 대인관계문제 및 성인애착의 관계

윤수정*, 이춘엽**, 김희정**, 정혜림**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작업치료실
**가야대학교 작업치료학과

— 국문초록 —

목적 : 본 연구는 대학생의 감각처리 유형과 대인관계문제 및 성인애착의 정도를 알아보고 이들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국내 K지역의 대학생 169명을 대상으로 감각처리 유형은 청소년/성인 감각프로파일(Adolescents/Adults Sensory Profile; AASP)을, 대인관계문제는 한국판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척도의 단축형(Short Form of the 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Circumplex Scale; KIIP-SC)을, 성인애착은 친밀관계경험척도(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Scale-Revised; ECR-R)를 사용하여 측정을 실시하였다. 감각처리 유형과 대인관계문제 및 성인애착의 관계는 피어슨 상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 대학생의 감각처리 유형은 감각찾기만 "일반인보다 덜함"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등록저하, 감각예민, 감각회피는 "일반인과 유사함"의 결과를 보였다. 대인관계문제는 자기희생과 과순응성에서 어려움이 많았고, 자기중심성과 통제지배가 어려움이 적었으며, 성인애착은 애착회피가 애착불안보다 더 안정적이었다. 감각처리 유형 중 등록저하와 감각예민은 모든 대인관계문제 및 성인애착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대인관계문제 중 자기희생과 과관여는 감각찾기와,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과순응성은 감각회피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감각찾기와 감각회피는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p<.05).

결론 : 작업치료 임상에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와 애착의 문제를 경험하는 비장애인에게 감각처리의 유형에 따른 중재를 실시한다면 그들이 질 높은 사회활동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제어 : 감각처리 유형, 대인관계문제, 대학생, 성인애착

Ⅰ. 서 론

작업치료의 접근 방법 중 하나인 감각통합치료 이론은 신경기능과 행동의 관계를 규명한 것으로 감각처리가 기능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한다. 감각통합치료는 촉각과 고유수용성감각, 전정감각이 핵심 요인이며(Ayres, 1989), 이러한 요인이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발달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는 치료 접근법이다. 작업치료사는 인간의 환경적 자극과 그에 대한 행동반응의 가설을 통해 감각처리를 평가하고 중재한다

교신저자: 이춘엽(bommm81@naver.com)
접수일: 2017. 07. 10. 심사일: 2017. 07. 21. 게재승인일: 2017. 08. 20.

(Ayres, 1989).

감각처리는 인간의 어느 한 주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필수 기능 중 하나이다(Baranek, Foster, & Berkson, 1997). 즉, 감각처리는 인간의 활동과 관련이 많고, 우리가 받아들인 감각의 처리에 따라 환경과 행동의 선택이 결정되며, 이러한 선택은 결국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는데 영향을 미친다(Kim & Ju, 2013). 감각처리에 문제가 생기면 일반적인 감각자극에 대해 쉽게 흥분하고 화를 내거나(Ayres, 1979), 주의력과 감각조절의 문제, 감각방어, 활동패턴과 행동의 이상 등을 보인다(Kim & Kim, 2001). 또한 아동은 행동과 인지적 및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며 성인은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는다(Brown & Dunn, 2002).

한편 인간은 사회 속에서 출생하고 성장하며, 인간의 삶은 다양한 형태의 끊임없는 대인관계로 이루어져 있다(Lee & Nam, 2013). Sullivan(1953)은 대인관계가 개인 발달에 있어서 근원이 되며, 인간은 이러한 대인관계를 통해 개인적 만족과 안정을 찾아 나선다고 하였다. 또한 애착은 아동기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정신건강의 필수요건이고 대인관계의 기초가 된다. 생후 1년간 영아와 주 양육자와의 애착 형성 결과는 이후의 발달과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Yoo, Lee, & Jung, 2006). 감각처리에 문제가 있는 성인은 각자 독특한 습관과 일과를 형성하여 선호하는 활동만 하는 경향이 있다(Lee & Nam, 2013). 이는 본인의 감각처리 유형에 맞춰 습관화되고 패턴화된 결과이므로 사회적 상황에서 대인관계 및 애착에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

특히 대학생의 시기는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청소년기에는 주로 입시로 인해 가족, 선생님, 친구와 같은 제한된 대인관계로 지내다가, 대학에 진학하면서 다양한 경험에 의해 새로운 대인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시기에 불만족스럽고 조화롭지 못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면 심리사회적으로 적응을 하지 못한다(Lee, 2010).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와 성인애착과 같은 심리사회적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감각처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아동을 대상으로 감각처리와 사회성, 놀이 선호도, 사회성숙 등의 관계를 보거나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감각처리와 인성, 삶의 질, 대인관계 등을 보는 연구들이 있었다(Choi, Kim, & Lee, 2010; Hong & Kim, 2009; Kim, Baek, Oh, Jung, & Jang, 2013; Kim, Kim, Yoon, & Chang, 2014; Lee, 2012; Lee & Nam, 2013). 그러나 질 높은 사회활동을 위해 필요한 대인관계문제와 성인애착을 다룬 연구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감각처리 유형과 대인관계문제 및 성인애착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즉, 대학생의 대인관계와 애착 문제를 감소시킴으로써 보다 질 높은 사회활동이 되도록 성인 감각처리 중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감각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료방법인 감각통합치료에 대한 방향성이 제시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국내 K지역의 B대, D대, K대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평가도구에 대해 점수화 및 결과해석 등과 같은 전문적인 사전 지식이 없는 16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4년 12월 1일부터 2015년 1월 31일까지 시행되었다.

2. 연구 도구

1) 청소년/성인 감각프로파일 (Adolescents/Adults Sensory Profile; AASP)

감각처리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Brown과 Dunn(2002)이 개발한 AASP를 Park과 Kim(2006)이 한국어 버전으로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AASP는 일상적인 경험에서 성인의 감각반응을 자가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써, 6개 영역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 항목으로는 미각/후각처리 8문항, 움직임처리 8문항, 시각처리 10문항, 촉각처리 13문항, 활동수준 10문항, 청각처리 11문항이 있고, 각 문항은 리커트식 5점 척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항상 그렇다'의 5점까지 주어진다. 이는 행동반응의 유형에 따라 등록저하, 감각찾기, 감각예민, 감각회피의 4개로 나누어지며, 각 유형의 총점을 구한 평가 결과는 "일반인과 유사함", "일반인보다 덜함", "일반

인보다 매우 덜함", "일반인보다 높음", "일반인보다 매우 높음"의 5단계로 해석된다. 각 하위 영역별 Cronbach's α값은 등록저하가 .75, 감각찾기가 .68, 감각예민이 .70, 감각회피가 .79로 나타났다.

2) 한국판 대인관계문제 검사 원형척도의 단축형 (Short Form of the 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Circumplex Scale; KIIP-SC)

대인관계문제를 평가하기 위해 Horowitz(1996)이 개발하고 Alden, Wiggins와 Pincus(1990)가 재구성한 대인관계문제 척도를 Hong 등(2002)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KIIP-SC를 사용하였다. 이는 대상자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여러 대인관계문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가장 어려워하는 핵심적인 대인관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밝히며, 성격장애를 선별하기 위한 자기보고식 검사이다. 8개의 원형척도로 각 척도는 5문항씩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리커트식 5점 척도에 따라 '전혀 아니다'의 0점부터 '항상 그렇다'의 4점까지 주어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크게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8개의 원형척도는 첫째,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타인을 통제하거나 지배하고자 하는 성향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는 통제지배, 둘째, 타인으로부터의 관심과 지지를 요구, 타인에 대한 불신이나 의심들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는 자기중심성, 셋째, 다른 사람에 대한 친밀감이나 애정 등의 표현, 동정심, 온정, 관용, 배려 등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는 냉담, 넷째,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및 사회생활에서의 적응과 다른 사람 앞에서 불안해하거나 당황하고 소심해지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는 사회적 억제, 다섯째,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사나 요구를 적정하게 표현하는 것이나 대인관계에서 자존감이나 자신감의 결여 등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는 비주장성, 여섯째,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순종적이고 우호적인 정도 및 대인관계에서 독립성의 유지 등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는 과순응성, 일곱째, 다른 사람의 요구에 대한 민감성, 과양육, 책임감 및 대인관계에서의 지나친 배려나 허용성 등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는 자기희생, 여덟째, 우호적 지배성과 관련된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관여하고자 하는 경향 등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는 과관여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하위 영역별 Cronbach's α값은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과순응성은 .91, 통제지배, 자기중심성, 자기희생, 과관여는 .92로 나타났다.

3) 친밀관계경험척도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Scale-Revised; ECR-R)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Fralev, Waller와 Brennan (2000)이 개발하고 Kim(2004)이 번안 및 수정한 ECR-R을 사용하였다. 이는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18문항으로 총 36문항이다. 각 문항은 리커트식 5점 척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주어지며, 점수가 낮을수록 안정적인 애착을 의미한다. 애착불안은 타인으로부터 버림받는 것과 거절을 경계하는 차원이고, 애착회피는 타인에게 의존하거나 타인과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 불편해하는 차원이다. 각 하위 영역별 Cronbach's α값은 불안은 .91, 회피는 .92로 나타났다.

3. 연구 방법

연구자는 국내 K지역의 대학을 직접 방문하여 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뒤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자에 한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들은 수집된 개인정보가 연구 목적 이외에 절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과 개인의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참여의 동의를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음을 약속하는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또한 도구의 작성요령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은 후 기입하였으며 이는 즉시 회수되었다. 총 200부의 도구가 배포되었고 이 중 무응답 문항을 포함해 불성실하게 응답한 31부(15.5%)를 제외한 169부(84.5%)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사용하였고, 감각처리 유형과 대인관계문제, 성인애착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감각처리 유형과 대인관계문제 및 성인애착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을 사용하였다. 모든 통계의 유의수준 α=.05로 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 총 169명 중, 여자가 58.0%(98명), 남자가 42.0%(71명)이었고, 나이는 19세가 39.6%(67명)로 가장 많았으며, 학년은 1학년이 42.0%(71명)로 가장 많았다. 학제는 4년제가 79.3%(134명)로 2·3년제보다 많았고, 학과는 보건계열이 57.4%(97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공학계열이 19.5%(33명)로 많았다. 전 학기 성적은 3.5이상부터 3.9이하가 39.0%(66명)로 가장 많았고, 부모와의 동거 여부는 동거하는 경우가 88.2%(149명)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보다 많았다(Table 1).

2. 대상자의 감각처리 유형과 대인관계문제 및 성인애착의 정도

대상자의 감각처리 유형은 감각찾기만 38.06 ± 7.10점으로 "일반인보다 덜함"으로 나타났고, 다른 유형은 모두 "일반인과 유사함"의 결과를 보였다. 대인관계문제는 자기희생(13.76 ± 4.12), 과순응성(12.84 ± 4.20), 비주장성(12.62 ± 4.36), 과관여(11.73 ± 6.17), 사회적 억제(11.56 ± 4.73), 냉담(11.11 ± 4.20), 통제지배(10.59 ± 3.70), 자기중심성(10.05 ± 3.64) 순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69)

Variables	Categories	n	%
Gender	Female	98	58.0
	Male	71	42.0
Age (years)	18	8	4.7
	19	67	39.6
	20	42	24.9
	21	21	12.4
	22	24	14.2
	≥23	7	4.2
School year	1	71	42.0
	2	59	34.9
	3	24	14.2
	4	15	8.9
School system	4 year course	134	79.3
	2·3 year course	35	20.7
Department	Health science	97	57.4
	Engineering	33	19.5
	Art, music and physical	15	8.9
	Social science	13	7.7
	Humanities	8	4.7
	Education	3	1.8
Grade	≤2.9	29	17.2
	3.0-3.4	47	27.8
	3.5-3.9	66	39.0
	≥4.0	27	16.0
Living with parents	Yes	149	88.2
	No	20	11.8

났다. 성인애착은 애착회피(48.70 ± 6.16)가 애착불안(58.87 ± 12.31)보다 더 안정적이었다(Table 2).

3. 감각처리 유형과 대인관계문제 및 성인애착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감각처리 유형 중 등록저하와 감각예민은 모든 대인관계문제 및 성인애착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대인관계문제 중 통제지배와 자기중심성, 그리고 성인애착 중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모든 감각처리 유형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대인관계문제 중 자기희생과 과관여는 감각찾기와,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과순응성은 감각회피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감각찾기와 감각회피는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p<.05) (Table 3).

Table 2. The level of sensory process type, interpersonal problems, and adult attachment

Variables	Categories	*M* ± *SD*
AASP	Low registration	33.35 ± 8.47
	Sensory seeking	38.06 ± 7.10
	Sensory sensitivity	36.90 ± 8.61
	Sensory avoiding	35.56 ± 7.97
KIIP-SC	Domineering / Controlling	10.59 ± 3.70
	Vindictive	10.05 ± 3.64
	Cold	11.11 ± 4.20
	Socially inhibited	11.56 ± 4.73
	Nonassertive	12.62 ± 4.36
	Overly accommodating	12.84 ± 4.20
	Self-sacrificing	13.76 ± 4.12
	Intrusive	11.73 ± 6.17
ECR-R	Attachment anxiety	58.87 ± 12.31
	Attachment avoiding	48.70 ± 6.16

Abbreviations: AASP, Adolescents/Adults Sensory Profile; KIIP-SC, Short Form of the 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Circumplex Scale; ECR-R,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Scale-Revised

Table 3. Inter-correlations of sensory process type, interpersonal problems, and adult attachment

Variables	Categories	AASP			
		Low registration	Sensory seeking	Sensory sensitivity	Sensory avoiding
KIIP-SC	Domineering / Controlling	0.457**	0.316**	0.298**	0.347**
	Vindictive	0.467**	0.184*	0.374**	0.480**
	Cold	0.361**	0.012	0.298**	0.396**
	Socially inhibited	0.274**	-0.072	0.213**	0.285**
	Nonassertive	0.402**	-0.020	0.353**	0.320**
	Overly accommodating	0.437**	0.080	0.273**	0.232**
	Self-sacrificing	0.345**	0.180*	0.153*	0.129
	Intrusive	0.367**	0.364**	0.294**	0.136
ECR-R	Attachment anxiety	0.394**	0.301**	0.302**	0.258**
	Attachment avoiding	0.396**	0.392**	.0347**	0.336**

Abbreviations: AASP, Adolescents/Adults Sensory Profile; KIIP-SC, Short Form of the 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Circumplex Scale; ECR-R,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Scale-Revised.
*p<.05, **p<.01

Ⅳ. 고 찰

작업치료 영역에서 감각통합에 대한 중재는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대상이 아동으로 한정되어 있어 성인의 감각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는 미흡한 실정이다(Brown & Dunn, 2002).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감각자극과 마주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각자극에 반응하는 역치 수준이 일정한 범위 내에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범위를 벗어나 감각정보에 저반응 또는 과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감각처리는 인간의 행동, 환경, 구성, 선택 행동 등의 작업수행영역에서 일상생활의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감각자극을 받아들이고 조직화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대학생은 신체적으로 성인에 속하지만 사회적·심리적으로는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과도기에 속하는 시기이고 불안정하며 혼돈되기 쉬운 시기이다(Lee & Nam,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감각처리 유형과 대인관계문제 및 성인애착의 관계를 파악하여 성인의 감각처리 중재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대학생의 감각처리 유형은 감각찾기만 “일반인보다 덜함”으로 나타났고, 다른 유형은 모두 “일반인과 유사함”의 결과를 보였다. 이는 AASP를 연구한 국내외의 결과에서 국외는 모든 항목이 “일반인과 유사함”으로 나타났으나(Crane, Goddard, & Pring, 2009; Engel-Yeger, Mimouni, Rozenman, & Shani-Adir, 2011; Rieke & Anderson, 2009), 국내는 감각찾기만 “일반인보다 덜함”의 결과를 보인 것과 일치하는 내용이었다(Hong & Kim, 2013). 이와 같은 결과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적극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인 성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는 자기희생, 과순응성이 어려움을 경험하는 문제이고, 자기중심성과 통제지배가 어려움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ee와 Nam(2013), Hong 등(2002)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자기희생과 과순응성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인관계를 보면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도와주려 하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욕구나 의사를 잘 밝히지 못하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Hong et al., 2002). 즉, 갈등을 겪는 많은 상황에서 행동으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실제 마음으로는 힘들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자기중심성과 통제지배는 편집적 성격장애와 연관된 것으로 타인을 믿지 못하고 그들의 동기나 행동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Park, Hong, Yu, & Kim, 2001). 본 연구에서는 “어려움이 덜함”으로 나타나 대학생들은 타인을 나쁘게 인식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인애착은 애착불안이 애착회피보다 더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인애착을 알아 본 Yoon과 Kim(2013)의 연구에서 불안의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거나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 불편을 느끼는 것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절과 버림받는 느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과 관련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감각처리 유형 중 등록저하와 감각예민은 대인관계문제와 성인애착의 모든 영역과 상관성이 있었다. 이는 Kim 등(2002)과 Lee와 Nam(201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이었다. 즉, 등록저하는 역치 수준이 높고 수동적인 행동 반응이 높게 나타나므로 자극에 대해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하기 어려워 다른 사람과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또한 다른 사람 앞에 서면 더욱 불안해지고 자신의 욕구나 의사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며 오히려 지나치게 순종적인 성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대인관계문제의 모든 영역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Kim et al., 2002). 감각예민은 낮은 역치로 인한 불편함과 예민성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지 못하고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생긴 결과로 보인다.

또한 감각처리 유형 중 감각찾기는 자기희생과 과관여, 감각회피는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과순응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감각찾기와 감각회피는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자기희생과 과관여가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간섭하려 한다. 이는 역치가 높으면서 적극적인 행동 양상으로 상대방의 일에 지나치게 관여하려 하는 감각찾기의 유형과 관계가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정서적 표현이 어려운 냉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불안해하고 소심해지는 사회적 억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욕구나 의사를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는 비주장성,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는 과순응성이 많은 사람은 낮은 역치로 불안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

지 않고 회피하려 하는 감각회피의 유형과 관계가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Lee & Nam, 2013; Park et al., 2001).

Kim(2014)은 젊은 연령의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혼란을 겪고 방황하는 심리적인 동요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이 대인관계문제와 성인애착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이 감각처리 유형과 관련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감각처리 능력은 더 나아가 작업 균형과 개인적인 생활 특성 및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Choi et al., 2010; Kim, Choi, & Lee, 2007).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감각처리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감각통합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모두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여 적용했으므로 실제로 측정하려는 특성의 정확한 측정이 되지 못할 것을 우려하였다. 이러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 설문지 작성 방법에 대해 수차례 설명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노력을 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대인관계문제와 성인애착에 따른 심리학적인 검사를 함께 실시하는 못해 다양한 심리적인 문제들을 다루지 못했다. 셋째, 본 연구는 감각처리 유형과 대인관계문제 및 성인애착의 관계만 파악하였을 뿐, 대학생들을 위한 구체적인 중재방법이나 대안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추후 연구의 진행이 필요할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감각처리 유형과 대인관계문제 및 성인애착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등록저하와 감각예민과 같은 수동적인 유형은 모든 대인관계문제 및 성인애착과 상관성이 있었고, 능동적인 유형인 감각찾기와 감각회피는 서로 다른 내용의 대인관계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업치료 임상에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와 애착의 문제를 경험하는 비장애인에게 감각처리의 유형에 따른 중재가 필요함을 암시하였다. 이러한 중재로 대학생들에게 대인관계문제의 경험을 줄이고 성인애착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준다면 그들이 질 높은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

Alden, L., Wiggins, J., & Pincus, A. (1990). Construction of circumplex scales for the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5*, 521-536.

Ayres, A. J. (1979). *Sensory integration and child.* Los Angeles, CA: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Ayres, A. J. (1989). *Sensory integration and praxis test.* Los Angeles, CA: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Baranek, G. T., Foster, L. G., & Berkson, G. (1997). Sensory defensiveness in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17*(3), 173-185. doi:10.1177/153944929701700302

Brown, C., & Dunn, W. (2002). *The adult sensory profile.* San Antonio, TX: Psychological Corporation.

Choi, J. D., Kim, J. K., & Lee, T. Y. (2010). Relationship between sensory processing styles and personalit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18*(1), 23-30.

Crane, L., Goddard, L., & Pring, L. (2009). Sensory processing in adult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Autism: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and Practice, 13*(3), 215-228. doi:10.1177/1362361309103794

Engel-Yeger, B., Mimouni, D., Rozenman, D., & Shani-Adir, A. (2011). Sensory processing patterns of adults with atopic dermatitis. *Journal of the European Academy Dermatology and Venereology, 25*(2), 152-156. doi:10.1111/j.1468-3083.2010.03729.x

Fralev, R. C., Waller, N. G., & Brennan, K. A. (2000).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 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350-365.

Hong, E. K., & Kim, H. G. (2009). The effects of group sensory integration intervention for sensory processing, fine motor skill, and social skil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ensory Integration*

Therapists, 7(2), 1-12.

Hong, E. K., & Kim, K. M. (2013). The systematic review of assessment tool to measure sensory processing ability: Provide the mean of performance in South Korea and other countrie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2*(2), 189-207.

Hong, S. H., Park, E. Y., Kim, Y. H., Kwon, J. H., Cho, Y. R., & Kim, Y. K. (2002). Short form of the 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circumplex scales(KIIP-SC).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4), 923-940.

Horowitz, L. (1996). The study of interpersonal problem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 283-300.

Kim, E. J. (2014). *'Emerging Adulthood' as the new developmental stage. Discourse, 17*(3), 83-129.

Kim, H. D., Baek, J. Y., Oh, M. H., Jung, H. S., & Jang, Y. S. (2013). The influence on sensory processing ability and social maturity of children who have foreign mothers with acculturation stres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21*(4), 23-36. doi;10.14519/jksot.2013.21.4.03

Kim, J. K., Choi, J. D., & Lee, T. Y. (2007). The study of adult sensory processing.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15*(3), 117-125.

Kim, M. S., & Kim, T. R. (2001). A comparison of the sensory processing skills of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9*(1), 1-10.

Kim, S. H. (2004). *Adaptation of the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revised scale into Korea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item response theory approaches*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im, S. J., & Ju, Y. M. (2013). The study for validation of adult sensory processing scale considering temperament factor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gnitive Rehabilitation, 2*(2), 45-62.

Kim, Y. H., Jin, Y. K., Cho, Y. R., Kwon, J. H., Hong, S. H., Park, E. Y. (2002). *Interpersonal Problems examination manual*. Seoul: Hakjisa.

Kim, Y. J., Kim, J. W., Yoon, N. R., & Chang, M. Y. (2014). The correlation of sensory processing abilities and play preferences of school-age childre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ensory Integration Therapists, 12*(1), 1-11.

Lee, J. H., & Nam, T. G. (2013). The relation between sensory processing ability and interpersonal problem of som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6), 2780-2787. doi:10.5762/KAIS.2013.14.6.2780

Lee, S. H. (2010). *The relationship among interpersonal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anger expression in university student*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Lee, T. Y. (2012). Correlations between quality of life and sensory processing abilities in older adul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2*(5), 272-279.

Osborne, R. H., Elsworth, G. R., & Hopper, J. L. (2003). Age-specific norms and determines of anxiety and depression in 731 women with breast cancer recruited through a population-based cancer registry. *European Journal of Cancer, 39*(6), 755-762.

Park, E. Y., Hong, S. H., Yu, Y. O., & Kim, Y. H. (2001). Cross-validation and clinical applications of 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circumplex scal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2), 331-344.

Park, M. H., & Kim, K. M. (2006). The necessity for adult's sensory processing evaluating tool and the introduction of adolescent/adult sensory profil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ensory Integration Therapists, 4*(1), 17-28.

Rieke, E. F., & Anderson, D. (2009). Adolescent/Adult Sensory Profile and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63*(2), 138-145. doi:10.5014/ajot.63.2.138

Sullivan, H.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orton.

Yoo, A. J., Lee, J. S., & Jung, H. S. (2006). The effects of peer attachment and emotion regulation style on adolescents' depressio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4*(1), 31-41.

Yoon, M. S., & Kim, N. H. (2013). Mediating role of adult attachment between loss experiences and student adaptation among university student. *Mental Health & Social Work, 41*(1), 60-89.

Abstract

The Correlation between Sensory Process Type and Interpersonal Problems, Adult Attachment on University Students

Yoon, Su-Jeong*, M.Sc., O.T., Lee, Chun-Yeop**, M.Sc., O.T.,

Kim, Hee-Jung**, Ph.D., O.T., Jung, Hye-Rim**, Ph.D., O.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Supporting Center for Special Education, Kang-nam Ulsan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Kaya University

Objective :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level of sensory process type, adult attachment and interpersonal problems on university students and then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Methods : For this study, 169 students who don't know about the evaluation tool in university students of K area in Korea were participated. To execute evaluation, Adolescents/Adults Sensory Profile (AASP) was used for the sensory process type, Short Form of the 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Circumplex Scale (KIIP-SC) was used for interpersonal problems, and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Scale-Revised (ECR-R) was used for the adult attachment. The correlation between sensory process type and interpersonal problems, adult attachment was analyzed by using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 Sensory process type of university students appeared that sensory seeking was lower than general people, and the rest of items showed similar results with general people. For interpersonal problems, there was a lot of difficulty in self-sacrificing and overly accommodating, whereas there was a little difficulty in vindictive and domineering / controlling. For adult attachment, attachment avoiding was more stable than attachment anxiety. Also, low registration and sensory sensitivity all showed positive correlation with interpersonal problems and adult attachment. Among interpersonal problems, self-sacrificing and intrusive showed positive correlation with sensory seeking whereas cold, socially inhibited, nonassertive, and overly accommodating showed positive correlation with sensory avoiding. Thus, sensory seeking and sensory avoiding showed different results ($p<.05$).

Conclusion : In occupational therapy clinic, not only the disabled but non-disabled people that experience issue of interpersonal problems and attachment could be helped with managing high quality social activity if they execute intervention according to sensory process type.

Key Words : Adult attachment, Interpersonal problems, Sensory process type, University students